

PB · PPC 배관을 조립 · 수압 · 보온후 설치 시공

—동산토건(주) 갈산 및 중동아파트
현장에서 적용—

“

PB 및 PPC 배관을 1차적으로 조적벽에 블럭
홈 커터로 배관자리를 파취한 후 2차 Work
Shop에서 세대별로 재단, 조립, 수압,
보온까지 한 상태를 세대내에 투입, 몰탈 및
기타 지지물로 고정하는 공법

”

동산토건(주)의 갈산과 중동 아파트 현장(소장·박찬수)에서는 급수·급탕관의 PB 및 PPC 배관을 Work Shop에서 세대별로 재단, 조립, 수압, 보온을 한 후 각 현장에 투입, 몰탈 및 기타 지지물로 고정하는 공법으로 시공, 인력절감 및 공기단축, 하자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.

“

이 방법은 수압시험을 한곳에서 시행하기
때문에 수압기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
많은 인원이 필요없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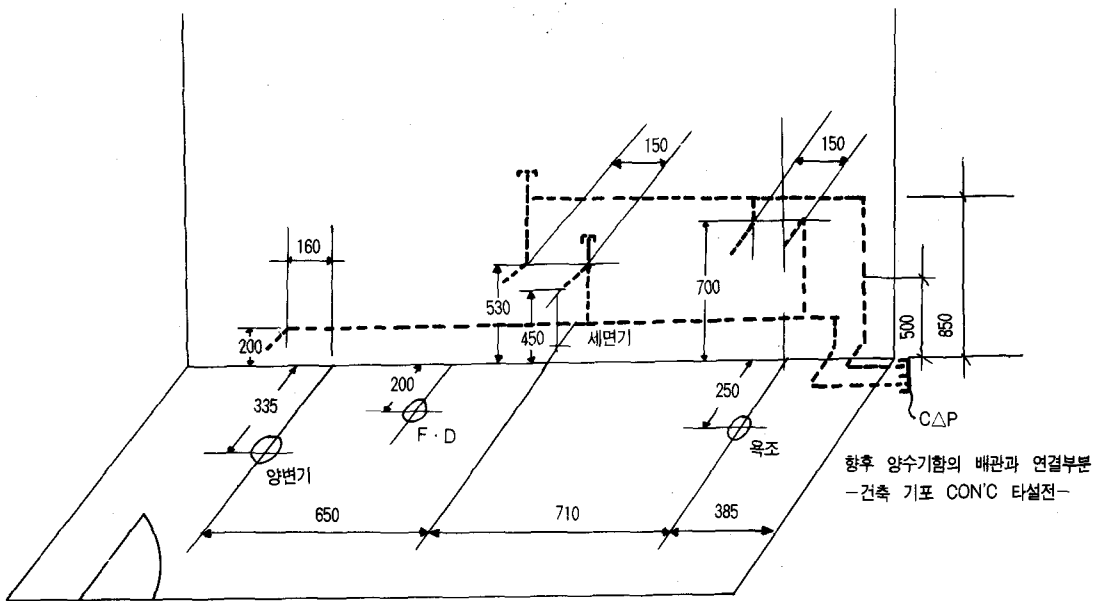
”

기존의 경우 현장 세대내 화장실에서 조적, 파취 후 용접(동관) 및 재단, 조립(PB, PPC)하여 세대별로 수압시험을 하고 있다. 이 수압시험을 위해서는 수압기와 물을 계속 이동시키거나 공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수압시험을 확인해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각 세대별로 체크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수압시험 후 물이 완전하게 배수되지 않아 동파의 염려가 우려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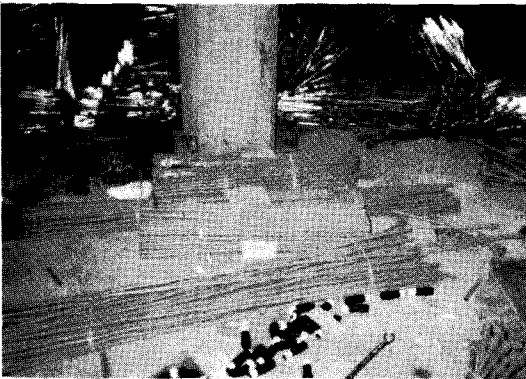
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고자 동산토건의 갈산 및 중동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용접배관(동관)은 현행대로 하되, PB 및 PPC 배관은 1차적으로 조적벽에 블럭 홈 커터로 배관자리를 파취한 후, 2차 Work Shop에서 세대별로 재단, 조립, 수압, 보온까지 한 상태를 세대내에 투입, 몰탈 및 기타 지지물로 고정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.

이 방법은 수압시험을 한 곳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압기를 이곳저곳에 옮기지 않아도 되고 수압시험 결과 및 진행상태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인원이 필요없어, 특히 Pool제 현장에 효율적이다.

급수· 급탕배관 시공도



<점선부분은 블럭 HOME CUTTER 파취부분 또는 HOME 벽돌사용부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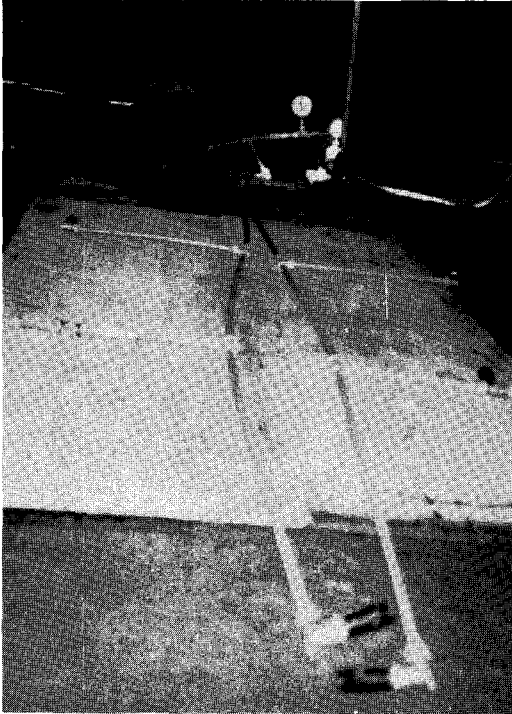


①파이프를 길이에 맞게 재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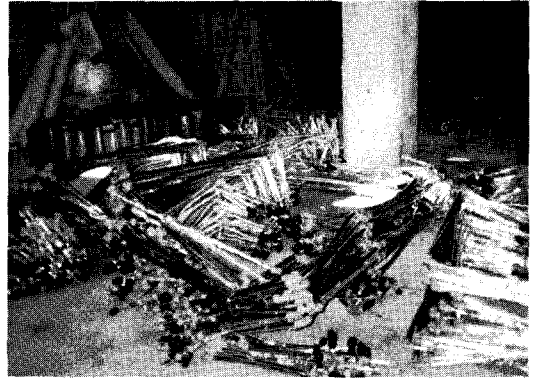


②재단한 파이프를 조립한다.

• 국 내 •
기 술 정 보



③10~15 kg / cm² 압력의 수압 Testing.
(최고사용압력 1~7.5 kg / cm²)



④파이프 보온재로 보온한다.



⑤현장에 설치한다.



⑥물탈 마감처리